

“나이 차 우려? 호흡 최고죠”

‘남자친구’ 송혜교-박보검

tvN 28일 첫 방송

송혜교 “송중기 응원받아”

박보검 “설레는 감성멜로”

“박보검 씨와 연기해야 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요.”(송혜교)

“송혜교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박보검)

배우 송혜교(36)와 박보검(25)이 tvN 새 수목극 ‘남자친구’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남자친구’는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차수현(송혜교 분)과 자유롭고 맑은 영혼 김진혁(박보검)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설레는 감성 멜로 드라마다.

차수현과 김진혁이 낯선 땅 쿠바에서의 만남 이후 서로 스며들며 인연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남자친구’는 송혜교와 박보검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가 됐다.

결혼 후 첫 복귀작으로 ‘남자친구’를 선택한 송혜교는 남편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절친’인 박보검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송혜교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보검과의 호흡에 대해 “많은 분이 전부터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작품 전엔 박보검 씨를 잘 몰랐다. 작품을 통해 만났다”며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호흡 맞추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이 (박보검과의) 나이 차이 이야기를 하셔서 걱정은 됐다”면서도 “드라마 안에서도 연상연하이고, 호텔 대표와 직원인 설정이 확실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 보는 분들이 부담 안 느



끼도록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송혜교가 연기하는 차수현은 정치인 딸로, 재벌가 아들과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은 호텔을 경영한다.

송혜교는 “데뷔한 후 처음으로 이혼녀 역할을 맡았는데, 이전에 했던 밝은 캐릭터들과 아주 다르지는 않다”며 “차수현은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어두워졌다가 김진혁을 만나면서 이전 모습을 찾아간다. 시청자들이 (차수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후 첫 복귀작인 만큼 결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송중기 씨와 ‘잘 지켜보겠다.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진혁 역을 맡은 박보검은 2016년 ‘구르미 그린 달빛’ 이후 2년 만에 복귀

한다.

박보검은 “‘남자친구’ 캐릭터나 대사에서 설레는 부분이 많았다”며 “2년 만의 작품이지만, 작품 때마다 떨리는 마음은 똑같다.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혜교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송혜교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처음엔 살짝 어려웠지만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강조했다.

박보검은 자신이 연기하는 김진혁에 대해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자기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인물이다”며 “작품 속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 드라마 통해서 다양한 직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 티저 영상 등에서 보이는 박보검의 긴 머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머리를 자기작을 생각하고 기른

것은 아니고 길러보고 싶어서 기른 건데 많은 분이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다”며 “(긴 머리가) 김진혁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녹아든 것 같다”고 웃었다.

송중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를 묻자 “중기형이 말한 대로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며 “저도 ‘아스달 연대기’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쿠바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길을 끌 예정이다.

송혜교는 “쿠바가 정말 아름다웠다. 여유품과 편안했다”며 “쿠바 사람들은 상냥했다”고 돌아봤다.

박보검도 “과거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나라였다”며 “신선하고 이국적이었던 드라마를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해부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오는 24일 방송에서 양진호 한국마케팅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다시 한번 보도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 유통의 심각성과, 해당 문제의 핵심에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이 방송 직후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었고,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폭행, 마약 등 다른 불법 행위가 더 큰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 양 회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오는 24일 방송에서는 양 회장 회사 전임원인 공약제보자를 포함한 전 직원, 피해당사자, 업계 관계자를 만나 양 회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갑질’, 도청과 감시가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통한 ‘돈벌이 왕국’ 유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매출을 올리도록 독려한 양 회장의 영업 수법을 파헤친다. /연합뉴스

유승준 11년만에 국내 새 앨범 ... “반성·후회 담아”

‘어나더 데이’...여론은 싸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2)이 11년 만에 국내에서 새 앨범을 발표한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웨이보에 앨범 재킷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어나더 데이’(ANOTHER DAY)란 선공개곡 제목과 ‘11.22.18’이란 발매일을 공개했다. 다음달 디지털 앨범도 낼 예정으로, 국내에서 신보는 2007년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 이후 11년 만이다.

가수 H-유진이 프로듀싱한 ‘어나더 데이’는 서정적인 미디움 템포 발라드로, 과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노랫말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에는 또 ‘유승준 표’ 댄스곡 등이 수록됐다.



유승준은 2개월여 전부터 대형 음반유통사를 중심으로 이번 앨범의 국내 유통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최근 유승준 측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보내와 일반 유통을 의뢰했는데, 내부 논의 끝에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앨범 발매 소식이 나온 이날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는 이번 앨범 수익금을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죽어도 좋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통 메카드		25 헬로키키 동물교실 (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 (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뽀빠이행복 로고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kbc-jtv 공동제작 히스토리 쇼, 천년의 이야기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모두 하우스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남여상열지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뽀우 09:00 두다다콩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통상검구이와 유린소스 양배추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독도채널e (재)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카 폴리 15:00 마사와 곰스페셜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뽀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15일 戊午)
子	36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48년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60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72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겠다. 84년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인 단계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66, 62	42년생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54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66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78년생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90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0, 12
丑	37년생 다자간의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자. 49년생 지금 당장 철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61년생 내버려두면 불신의 끝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을 알라. 73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효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다. 85년생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4, 43	43년생 해복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55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67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세이다. 79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91년생 진부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자. 행운의 숫자 : 17, 19
寅	38년생 근시안적인 관점은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50년생 주려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는 양태이다. 62년생 우연히 현상의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74년생 이룰 수도 없고 저될 수도 없을 것이다. 86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으자. 행운의 숫자 : 56, 48	44년생 소신껏 조치하라. 56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68년생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80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92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5, 87
卯	39년생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백 번 나올 것이다. 63년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절하리라. 75년생 노력에 대한 알찬 성과가 따른다. 87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09	45년생 노파심은 활동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57년생 행할 바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69년생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1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93년생 핵심을 벗어나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8, 80
辰	40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더 요청 되는 때이다. 52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추어야 할 때이다. 64년생 내색할 단계가 아니다. 76년생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엔 보람을 느낄 것이다. 88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7, 66	34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리라. 46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58년생 자신이 의도했던 바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70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옳다. 82년생 바람직한 방향인 지 진로를 확인해 보자. 행운의 숫자 : 73, 39
巳	41년생 능력이 오르게 될 것이다. 53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65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77년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89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자. 행운의 숫자 : 01, 53	35년생 문제의 장본인과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다. 47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59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라. 71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83년생 보잘 것 없으니 기대할 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96, 61